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적응 특성

Trait of Local Community Adaptation of Migrant Women by Marriage

성향숙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Hyangsook Sung(hssung@cup.ac.kr)

요약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의 특성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 향상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0. 4월부터 5개월간 8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은 현상학적 연구 중 Colaizzi방법론을 채택하였는데, 심층면접을 통하여 녹취한 진술을 텍스트화 한 후, 유의미한 진술내용을 코딩하여, 주제(themes), 주제묶음(theme cluster)으로 범주화하였다. 분석결과, '내적역량의 강화', '문화적응', '제한적 수혜자 되기', '인적네트워크 없음', '미래를 낙관할 수 없음' '지역사회 정착을 염원함', '한국을 떠날 수 있음'으로 총 7개의 주제묶음과 17개의 주제, 47개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에서 결혼이민여성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실천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결혼이민여성 | 지역사회 | 적응 | 현상학적 방법론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some specific features that were found during the adaptation process of migrant women by marriage to their local community, and also to elicit certain practical implications to facilitate their adaptation, based on the findings. For data collection,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ight migrant women by marriage and the interviews were tape-recorded for transcription. For analysis, phenomenological method, particularly, Colaizzi method was adopted, by which meaningful statements in the data were categorized into themes and theme clusters. A total of 7 thematic units, 17 themes and 47 meanings were elicited from the analysis and these 7 thematic units were "reinforcement of inner capability"; "cultural assimilation"; "to be a limited benefit receiver"; "no human network"; "impossible to be optimistic about future"; "hoping to reside in their local community"; "possible to leave Korea."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e implications for social welfare practices to facilitate the adaptation of immigrant women by marriage in their local community.

■ keyword : | Migration Woman by Marriage | Community | Adaptation | Phenomenological Method |

I. 서론

기든스는 지구화(globalization)란 시간과 공간을 초

월하여 전지구적 차원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의 미하며, 공간적으로는 서로 다른 지역이 하나로 연결되는 지구촌의 확대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1]. 이것은 우

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지역(region)과 지역의 국제적 사회관계가 강화됨을 의미한다. 199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래, 2020년 외국인·이민자와 그 자녀수는 같은 해 인구의 약 5.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결혼이민자를 수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이 2009년에는 순편익이 23억원, 2020년에는 93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사회복지 영역과 사회적 고립 및 공간적 격리극복을 위한 영역에서는 순비용이 발생하여 전체 편익이 저하되는 것으로 전망된다[2]. 이것은 결혼이민자의 사회복지 및 지역사회의 통합 과제는 향후 결혼이민으로 인한 편익발생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시사한다.

현재 결혼이민여성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자녀양육기, 자녀교육기, 가족역량강화기는 생애주기라는 시간적 개념을 바탕으로 가족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자녀양육과 교육, 가족의 경제·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구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곳은 지역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결혼이민여성의 적응문제는 주로 국가단위에서 문화적 차원에 집중하여 논의되어왔다. 이러한 시각은 기존의 한국사회에 개별적 이주자가 편입될 뿐 이주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본국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3].

사회복지학에서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과 참여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결혼이민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4], 지역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5],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과 참여에 관한 연구[6],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7]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결혼이민여성의 실질적 삶의 현장인 지역에서 이들이 어떤 상호작용 과정을 거쳐 지역주민으로 안착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결혼이민여성이 단순히 다문화 가족정책·서비스·연구의 대상자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인식하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연구들이 다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을 지역사회의 주체적 구성원으로 전제하면서, 이들의 지역사회 참여와 적응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역량 강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확보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Berry는 문화적응(adaptation)이란 하나의 문화가 새로운 환경의 문화와 상호작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환경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정도와 주류사회에 참여의 결합 정도에 따라 통합, 동화, 주변화, 고립으로 분류하였다. 통합(integration)이란 어느 정도 문화적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전체사회 네트워크의 중요한 부분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화(assimilation)는 현지국의 사회문화에 전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말한다. 이주민들은 이러한 4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응을 해결하는데 이 선택 내용을 Berry는 문화적응전략이라고 하였다[8]. 그러나 베리가 제시한 사회문화적응 유형은 현지국에서 사회통합되는 초기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와 정체성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가 있지만[9], 이주민들의 적응 양태를 살펴보기에는 유용한 도구이다.

이주민의 문화적응에 관한 문헌에는 심리적 적응(정서적/감정적)과 사회문화적 적응으로 구분하는데, 심리적 적응은 새로운 문화환경에서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만족감을 의미하며, 스트레스라는 용어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적응은 이주민이 문화적으로 적절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여 일상의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10]. 그러나 이주민으로서 겪는 언어장애를 기술적으로 잘 다루고 문화적 적응을 높인다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다른 집단 간의 인식구조나 세계관이 다른 것이 적응의 핵심 문제라고 할 수 있다[11].

한편, 결혼이민여성들은 대부분 나이가 젊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자발적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한 사람들

이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와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서 탄력성이란 고위험 상황에 노출되었음에도 역경을 극복하고 외상으로부터 회복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12].

결혼이민여성의 삶은 지역을 기반으로 영위되며, 적극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역사회참여의 정도는 지역사회와의 인적 네트워크로 측정될 수 있다. 이용균[13]에 의하면,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친한 한국인이 필요한데, 약 20%의 여성만이 친한 한국인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활동을 하는 결혼이민여성일수록 한국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의 사회적응도도 높았다. 이와는 달리, 정친석·강기정의 연구[14]에 의하면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생활적응에서 이웃과의 교류와 네트워크가 밀접할수록 생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사람들과의 교류방식에 익숙하지 않아서 당황스럽고 과도한 관심에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윤형숙의 연구[15]에서 보듯이 결혼이민여성의 의사소통의 불편함이나, 문화배경과 가치관의 이질성,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이들을 위축시켜 지역주민들과의 최소한의 접촉만을 허용한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가 증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16],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사회 배제의 경험을 보고하기도 한다. 주류 구성원들도 이주민에 대한 불안감을 보고하는데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고연령층이 젊은층에 비하여 이주민에 대한 위협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민들과의 지역사회에서 제한적 대면 경험과 그 결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17]. 따라서 어떤 인종·민족 집단에 대해서든 그들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상호인정과 동시에 그들과의 관계형성의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혼이민여성은 지역주민들과의 삶의 연관성 뿐 아니라 모국에 있는 친정, 친지, 친구와 연관성을 맺고 살아가고 있으며 현지국에서도 고향친구들과 일정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사회로 진전되면서

민족단위의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국경을 가로질러 다양한 인적네트워크와 문화적 네트워크가 증대되는 현상을 초국가주의라고 말한다[18]. 또한 고민경[19]은 초국가주의를 특정 지역에서 사회·문화·정치·경제적 상호관계 등이 이주자들의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개념정의 하였다. 이용균은 초국가주의 개념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의 네트워크를 연구하였는데, 민족문화네트워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본국에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이지만, 결혼생활이 길어짐에 따라 긴밀함은 줄어들고 한국에 있는 동일 출신국 여성과 어울리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주여성의 문화적 정체성은 모국과 현지국의 문화가 동시에적으로 내재하는 양가성(ambivalence)이 있다고 하였다[20].

III. 연구방법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에 관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양적 연구방법에 의한 실태조사와 이에 기반한 정책개발이 정부기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결혼이민여성의 적응, 행위규칙, 가치와 신념체계 등 현상의 이면에 내재한 연구가 주목적일 때, 질적연구가 보다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21]. 또한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주제에 대한 탐구적 역할을 하거나, 실제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경험에 대한 이해를 얻음과 동시에 그들의 삶으로부터 어떤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적연구가 보다 적합하다[22]. 현실적으로는 이민자들로부터 양적 자료를 통해 수집할 경우, 언어적 한계로 인하여 연구자가 알고자 하는 바를 이민자들이 솔직하고 충실하게 답하기 어렵다[23]는 문제점도 있다.

질적 연구 중에서 현상학적 방법론은 문화·선입견·편견 등으로 주어진 세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있는 그대로'의 것, 즉 현상을 받아들이기 위해 판단중지, 본질직관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특히 현상학적 방법론의 한 갈래인 Colaizzi 방법론은 일상생활의 경험으로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철학에 기반

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즉 연구참여자의 체험적(lived-experience) 원리에 대한 진술을 통해 그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 특성을 일상생활에 기반한 연구참여자의 진술문에서 의미를 도출한 후, 재구조화하고 그것에서 적응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연구의 세부적 방법으로 심층면접을 사용하였다. 조사는 2010. 4월부터 5개월간, 8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삼각측정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사, 결혼이민여성 대상의 자원봉사자, NGO활동가와의 면접내용과 연구참여자의 진술내용을 비교하면서 진술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성 중에서 최소 5년 이상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으로 자신의 체험을 언어적으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는 심층면접을 통하여 녹취한 진술을 텍스트화한 후, 텍스트와 녹음을 비교하면서 반복해서 읽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유의미한 진술내용을 코딩한 후, 주제(themes), 주제묶음(theme cluster)으로 범주화하였다.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적응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차원에서 결혼이민여성이 지역사회의 독립된 존재로서 경험하는 심리적이고 사회문화적 경험의 내용 둘째, 지역차원에서 지역주민과의 관계 등 지역사회 참여 경험 셋째, 연구참여자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모국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초국가 차원에서의 경험의 내용이다.

따라서 면접의 내용은 개인, 지역사회, 초국가의 차원에서 참여자들이 이주한 이후 겪었던 지역에서의 생활 사건과 경험,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지역에서 거주하는 모국 친구들과의 관계, 등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과 특이한 사건에 대한 경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방법 등이었다. 초기에는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시작하

였으며 후기로 갈수록 명료화를 위한 집중적 면접을 하였다. 분석방법은 녹취한 기록을 삼각측정에서 얻은 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하였고, 현장노트에 기록하였던 감정과 의미를 확인하면서 진술을 반복하여 읽은 후, 의미를 도출 하였다. 아래의 [표 1]은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제시한 것이다.

표 1.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구분	나이	출신국	학력	국내취업경험유무
A	27	베트남	대졸	없음
B	28	베트남	초졸	있음
C	29	조선족	고졸	있음
D	30	베트남	고졸	현직/자영업
E	36	태국	초졸	현직/공공근로
F	40	필리핀	고졸	있음
G	41	필리핀	고졸	현직/자영업
H	49	조선족	고졸	현직/자영업

IV. 연구결과

1. 개인 차원

1.1 내적역량의 강화

연구참여자들은 모국을 떠나 낯선 지역에 정착해야 하는 이주민으로서 언어, 지리, 문화가 다른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심리적 불안감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삶을 대처하고자하였다. 모든 것이 낯선 곳에서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대개의 경우,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적극적 성격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하였다. 이것은 연구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1.2 문화적응

연구참여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은 문화적 차이였다. 문화란 오랜 역사성 속에서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인식과 태도, 행위 규범을 제공하는 것으로, 동일한 문화적 습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문화적 배경과 역사성이 다른 지역에서 성장한 이민자들이 한국의 지역사회

에서 경험하는 문화적 이질성에 대하여,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자하거나(D, E), 개인·지역사회·국가·초국가에서 인간의 보편적 삶의 원리인 ‘마음이 중요’하며 이것으로 문화적 차이를 초월할 수 있다(G)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문화적 차별에 대한 저항, 한국문화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 노력, 인내, 강인함이 필요(D,F)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면서 모국보다 한국생활이 더 익숙해져 있었다.

지역사회에는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지역민의 생활환경을 제한한다고 할 때, 지역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되기보다는 자신의 모국에 대한 지역주민의 차별적 태도에 대해서는 저항하지만 스스로는 한국사회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진술하고 있다. 결국 문화적 차별에 대한 저항이 있지만 한국사회의 문화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지역사회 차원

2.1 제한적 수혜자되기

연구참여자들은 지역에 거주하는 생활인으로서 일상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김장이나 육아용품 등 일상에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었다. 지역에 소개하는 복지관, 종교기관 등에서도 의료와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혜자는 아니었다. 스스로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회를 갖거나(B),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무언가 부담을 준다면 서비스를 거부하거나(E), 본인이 힘들어도 한국인을 도와야 한다(F)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일방적 수혜자이기 보다 제한적이지만 지역을 위한 기여의 기회를 찾고자 하였다.

2.2 인적 네트워크가 없음

지역사회에서 인적 네트워크가 없다는 사실은 이들의 이주민으로서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인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러한 인맥을 만들기 힘들고(E, F), 그래서 한국인 친구가 더욱 필요(A,B,C) 하지만 현실은 여의치 않음을 진술하고 있다.

2.3 미래를 낙관할 수 없음

연구참여자의 이민배경은 고졸 학력으로 결혼을 통하여 한국의 지역사회에 이주하였다. 언어도 미숙하고, 전문기술도 없는 이들의 인적자본은 취약할 수 밖에 없으며 그 결과, 미래를 위한 우월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결혼이민여성들은 보다 나은 미래를 이민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지역사회 복지관, 여성회관 등에서 취업교육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미래를 기대하지만, 한국인도 살기 어려운 현실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인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문제는 미래를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초국가 차원

3.1 지역사회안착을 염원함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도 이민자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역에 거주하는 타이민자에게도 걱정과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한국의 문화와 언어가 미숙해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통역을 통해서, 또는 선 이민자로서 경험하였던 지혜를 동원하여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결국 일반적 결혼이민여성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한국사회 안착에 대한 기대와 염원이 내포된 활동이기도 하다. 또한 교회, 골목시장 등 지역 사회의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동향인에 대하여, 단지 고향이 같다는 사실만으로도 동질감을 느끼며, 모국사람들과 초국가 민족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지만, 향수를 달래면서 때때로 같이 밥을 먹거나 쇼핑을 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따라서 그들 간의 관계를 묶어줄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지는 못하였다.

3.2 한국을 떠날 수 있음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모국에서 더 잘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하고(B), 한국 국적취득에 소극적 태도를 보임으로서 한국사회를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닫혀있지 않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C).

표 2. 연구참여자의 지역사회적응에 관한 진술문

자원	주제 묶음	주제	의미있는 진술
개인	내적역량의 강화	불안감 극복하기	밖에 다니는 건 다른 사람하고 똑 같은데 왜 밖에 안 나가냐. 그냥 언어만 다르지. 얘기 데리고 밖에 다니고, 시장가는 것도 다 가야하니까(B) /...다른 동네 가는 버스예요. 큰일났다. 사고났다. 그래서 기사 아저씨 앞메가서 잘못했어요. 내려주세요. 내려주세요 해서 5키로는 걸어서...요래 요래 집까지 왔어요. 아주 많이 불안했어요(E) / 바깥에 나가면 불안감이 많아서, 말이 안통하고 대화 가 안되고...답답한 편이라. 안나가고 싶어 하는 쪽이라. 가만히 집에 있다가 보면 진짜 시간낭비하고...몇년 지나면 후회해요(F)
		적극적 성격으로 변화하기	연극배우 하는 것 있는데 누가 할래? 내 그것도 배우려고. 배우하면 말 하는 것도 배우잖아요(B)/그냥 내 성격이 내성적이고 말안하는 기법.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에 오니깐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저가 답답하니까 가서 한글공부하고. 지금은 적응 잘하니까 괜찮아요. 주위사람한테도 힘든 사항있으면 도움받고(C) 솔직히 우리 동네에서 재호 임마(본인)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항상 할머니들은 지나가면 어디 갔다왔냐, 뭐 하나 이런 거 대화 하거든요(E).
	문화적응	문화차이 이해하기	그냥 그렇다. 이쪽의 문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나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D)/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이나 그쪽은 역사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텔레비전에 안좋은 쪽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 나라를 무시하거든요. 또 옛날에 공부 못해서 모르는 (한국)말머리 많잖아요.(E) / 피부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만 중요하죠. 아니, 돈은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잖아요(G).
		문화적차별에 맞섬	시장에 가면 이거는 니 베트남에 없냐?, 여기(한국)는 더 좋지?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나니오. 우리(베트남)는 이런 거는 없는데 다른 거 많이 있어요. 그리고 더 맛있고, 그러니깐 무시 같은 거는 안해요(B)
강인함이 필요함		첫 번째는 시간이 필요해. 두 번째는 내가 노력해야 돼. 그건 제일 중요한 거야. 한국에 와서 무조건 한국말, 한국문화 두 가지. 한국 음식 천천히 배워도 돼. 그건 언제든지 배울 수 있기 때문에(D). / 한국사람이나 외국사람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틀리지만 다 똑같아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한국문화에 빨리 적응하고 싶다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강하지 않으면 못살아요(F).	
모국보다 한국생활익속 해짐	우리 친구들은 추위쪽에 나는 별로 안그래요. 베트남 가면 못살것 같아요. 언어도 까먹고 (베트남)음식도 맛이 없고 날씨도 그렇죠(B) / 처음 한국에서 화장을 잘 안합니다. /한국에는 무조건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사람을 계속 만나고, 친구도 많이 만나고, 그때 저는 예쁘게도 꾸미고 싶다생각합니다(D)		
지역사회	제한적 수혜자 되기	생활지원을 지원받음	우리 엄마가 여기 3개월 놀다 가는데 우리 동네 언니들 너무 잘해주고 (B)/인사 한마디만 해도 아, 새댁이냐 하고 관심 많이 줬어요. 이웃 할매들 김장 담을 때도 갔다주고 제가 받아먹었어요(E) / 효준이 한복 없어서 빌려주세요 했더니 (아들)친구 엄마가 빌려줬어요. 신발도 다 줬요. 제가 자주 연락했어요(G) / 시장사람들에게서 말 많이 배웠죠. 거기서는 가까운 사람들 많으니까(H)
		지역사회 서비스이용	복지관 다니는 인도네시아 언니가 동사무소에 있는 선생님을 내게 소개시켜주고, 그 선생님은 우리 집에 얘기 가르쳐주고(B) / 제가 카톨릭 성당에 나왔어요. 언니도 병원에 도움 많이 받았고 신경외과 도움 많이 받았고, 교우분들 도움도 받았고(E)/교회에 다니는 아줌마, 거기 아이가 많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야기 많이 했어요(G).
		일반적 수혜를 거부함	동네 사람들 나보고 좋아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 보면 다 인사하니까. 동네언니들하고 같이 아파트 안에서 부녀회원이에요 (B) / 만약에 우리가 시간 못 내서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쪽은 좀 뭐라 할까 왜 저구 빠지냐고하고 그런 상태라서 너무 부담되세요. 안 갈려고요. 딱 잘랐어요(E) / 우리도 힘들어도 (한국인들)잘 도와 줘야 되잖아요(F) /
	인적네트 워크 없음	인간관계가 협소함	처음부터 기초가 없잖아요. 같이 벌긴 벌어야 하는데 한정되어 있고. 친척이라도 잘 되는 사람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A)/인맥이 있으면 하나라도 팔기 더 쉬울 것 같아요. (인맥을)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나요? 장사를 시작하면 그 때는 좀 인맥이 생기겠지만 진짜 만들기가 힘들니다(H). /한국에는 무조건 관계가 가까워야 관심을 받을 수 있어. 그 상태가 너무 심해서. 우리는 안만나는데 어떻게 관계가 생기는지... 못 만들잖아요(E).
한국인 친구가 적실함		베트남 사람보다도 한국사람 더 많은 게 좋죠. 베트남 사람들 만나면 아무도 안 가르쳐주잖아요. 내가 더 힘들죠(A)/여기서(한국) 베트남 사람끼리 싸우는 건 좀 그렇잖아요. 사람들 보면 더 우수우니깐 그냥 싸울 안 해요. 그래서 한국 친구 많은 게 아무래도 좋으니까(B) / 교회 사람들도 좋아요 한국에 대해 모르는 것을 얘기하고, 왜냐면 한국에서 사니까 한국친구 더 있으면 더 좋아요(C)	
이민자로서의 한계		어떤 분들은 의사소통이 되기도 전에,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녀는 언어소통 없이 그냥 앉아서 일만 하니깐. 그건 또 너무 비인간적이고. 언어소통이 되야 그 다음단계, 더 나은 일을 찾아 나갈 수 있는데...-(C)/친하게 다니는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식당하거든요. 근데 노점상 한번 해보고 해서 그것도 해봤거든요.(F) /내 수준에 기껏해야 식당가서 일밖에 데해요? 그릇 씻고 그런 일밖에 데해요?(H) /	
미래를 낙관할수 없음	취업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함	한국에서 장사하는 거 아직은 모르니깐 좀 더 배워보고. 창업하는 거 배워보고 5년 있다가 내 혼자 할 수 있는 것 할 거예요(B) / 어린이 집에 가서 밥하는 게 힘들지만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요리학원가서 자격증 따고(C) /자격증 없는 사람은 공장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복지관에도 조리를 가르쳐 주는데... (E) /여성문화회관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공부도 하고 창업교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라도 배워볼까 생각중이에요(H). /	
	한국인보다 더 노력해야함	어렵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어서 별로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안정된 직장을 찾아가 되는데... 지금은 거의 맞벌이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국 분들도(E). /저는 진짜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보다 두 배, 세 배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물건이 좋고 싸야 사가지, 잘 안사가요. 그런 게 느껴져요(F)	
	지역사회 정착을 염원함	베트남 사람들 통역해주는 거는 그냥 내 생각에, 베트남 사람 가족들처럼 서로서로 모르는 거 가르쳐주고, 그 집안에 (머느리도) 리하는 거 가르쳐주고, 신랑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고.(B) /돈을 많이 안 벌어요. 봉사를 많이 해요. 그냥 차비 벌면서 한국말도 빨리 배울 수 있고, 그래도 제가 만약에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D) / 한국에 와서 한국문화도 모르고 말도 서투르고 오해 많이 생겼잖아요. 시어머니랑 갈등도 많이 하잖아요. 그 때 제가 통역해주고, 그대로 전해주면 상대방이 다칠 수 있어요. 제가 중간에서 좋게 얘기해줘요(F)	
초국가	모국사람과의 만남	교회가면 목사님 말 못알아들어요. 그래도 교향 친구 있으니까(A) / 골목시장에 가면 다 만날 수 있어요. 얼굴 보면은. 베트남 맞지?물론 예. 그래서 얘기하고 시간 있을 때 전화해서 만나고(B) / 중국에서 집집은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알고 싶고, 어떻게 지내는가도 알고 싶고(H)	
	한국을 떠날 수 있음	한국을 선택하지 않음	식구들하고 베트남 가서 살거라고. 베트남에서 제가 잘 했잖아요. 그래서 공장 같은 거하고, 식당 지어서 거기서 잘 살 거예요. 한국 돈보단 적은데 베트남에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효준이 공부 못하는 것도 괜찮아요(B) / 국적취득하려고 서류내면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잘못 댔다 하면 이름도 떨어져요. 이제 국적 양쪽에 없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아요. 정말 복잡한 편이라.(C)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1.1 개인차원의 적응: 동화

연구참여자들은 각 개인의 내적 역량을 강화하고, 때로는 지역사회에서 충돌하는 문화갈등에 저항하면서 기후, 음식 등 생활의 전방위에서 동화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베리는 동화(assimilation)를 개인이 그들 정체성을 유지하기보다 다른 문화와 매일 상호작용하고자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문화적응은 베리의 동화개념에 가깝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문화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동화를 선택하였다기 보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의도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도 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우호적이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이 보여주었던 모국문화 차별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지역주민의 몰이해를 역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탄력성은 오히려 한국의 지역주민을 문화적으로 관용하려는 태도로서, 다문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동화적 문화적응이 아닌 통합적 문화적응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Newman이 지적하였듯이 적응의 핵심은 다른 집단간의 인식구조나 세계관의 차이라고 하였는데, 연구참여자들의 문화적응에 대한 탄력적 태도는 향후 지역사회에서 빚어지는 문화적 인식의 격차를 줄이고,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2 지역사회 차원의 적응: 배제

연구참여자들은 문화적응을 거치면서 적응적 지역주민으로 변화하고 또한 지역주민,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수혜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혜자로서의 위치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2009년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배우자 중 기초수급자는 내국인 수급자가 1.6배인 4.9%에 이르며, 수급자의 35% 이상이 5년

이상의 장기수급자로 조사되어 내국인보다 빈곤문제가 심각하였다[24]. 이러한 빈곤은 교육, 문화, 의료, 사회참여 등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 이용의 기회가 배제될 수 있는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혼이민여성의 빈곤은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윤혜미[25]는 이들이 단순히 지역사회의 서비스 수급자로 머물 우려를 표하였는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이들이 지역사회 서비스의 일방적 수혜자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시혜적 차원의 서비스를 거부하면서, 무엇인가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지역에 정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이 지역의 서비스 수혜자로 머물기보다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상호작용 관계를 맺고 주체적 지역주민이 되고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주민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은 주류사회 구성원과의 접촉을 통해 문화를 학습할 기회와 더불어 문화가 요구하는 특정 기술을 획득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26].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지역주민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어려우며 이로서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용균이 주장하였던 네트워크로 인한 생활만족도도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한국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아직까지 지역주민의 태도는 결혼이민여성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할 경우에 결혼이민여성을 한국인으로 수용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27]. 결국 지역주민의 의식과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태도가 불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양자의 상호관계가 취약하다 것을 의미하고 본 연구 결과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인간관계가 협소하고 한국인 친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즉 지역주민과 결혼이민여성의 접촉의 양과 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에는 이들의 접촉의 양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1.3 초국가 차원의 적응: 양가성

초국가주의에 의하면 결혼이민여성은 지역을 기반으

로 현실의 삶을 살지만, 한편으로 지역은 모국과 이어지는 기반이기도 하다. 연구참여자들은 타이민자가 지역사회에 안착해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타이민자와 지역주민 간의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삶도 역시 그러하기를 바라는 것이며 그 바람을 간접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지역에 적응하고 살지만 여전히 모국과의 연관성이 이어지고 모국을 향한 정서적 갈망이 숨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삶의 터전을 떠나 모국으로 돌아가면 더욱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거나, 혹은 모국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사회에 적응해서 살고자 하는 개인적 선택을 하였다. 이는 앞서의 서술과는 방향성을 달리하는 것으로 결국, 결혼이민여성은 지역사회에서 안착을 염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모국으로의 귀향을 염두에 두는 양가적 감정, 양가적 선택을 모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2009년 실태조사[28]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25.3%는 한국국적을 취득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들의 상당수는 모국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며 영주권만 획득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동화주의적 정책시행이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29], 향후 결혼이민여성이 모국의 가족과도 잘 지내면서 지역의 공동생활자로서 안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이들의 양가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여성들은 자신의 민족문화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았고, 단순히 고향친구들을 부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친목도모의 차원에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향후 다문화 사회가 진전되고 지역에서 모국출신 여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된다면, 지역에서 동일 민족 네트워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시점이 온다면 지역사회의 주류집단 속에서 소수집단이 계도화되지 않고 어떠한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이다.

2. 결론

본 연구 결과,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적응에 있어 개인차원에서는 동화, 지역사회차원에서는 배제, 초국

가적 차원에서는 양가성을 보였다. 이주민의 원천적 한계라고 할수 있는 삶의 불안정성이 그대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이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으로는 이주민의 문화적응이 동화보다 통합적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하지만, 그 사회의 정책지향, 문화개방성, 역사성,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적응의 유형이 결정될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가 여전히 단일민족주의, 순혈주의 등과 같은 다문화적 흐름에 역행하는 흐름을 이완시키지 않으면서, 자칫 결혼이민여성을 한국사회에 일방적으로 동화되기를 원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차별과 폭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차원에서는 결혼이민여성 탄력성을 가지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임파워먼트 강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의 한국어 교육, 음식·가족문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넘어서 이들의 주체적 행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에게는 소수집단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과 인식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결혼이민여성과 지역주민이 공존하고, 양자 간 상호호혜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여성과 지역주민의 접촉의 양과 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양적으로는 공공기관(학교, 주민자치센터 등), 보육시설, 복지관, 서비스 제공기관, 시장 등 공공과 민간 기관에서 양자가 빈번하게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접촉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가가 핵심적 과제인데, 예를 든다면 이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유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이 구체적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거친다면 결혼이민여성은 지역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보다 강화되고, 지역사회 연계망이 형성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순조로운 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결혼이민여성을 임파워먼트 시키고 지역참여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미래의 전망을 긍정적으

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적절한 취업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업은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것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를 의미한다 [30]. 또한 취업여부는 한국에서 결혼이민여성의 결혼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안정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넷째, 결혼이민여성이 거주하는 지역과 모국 고향이 연결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양가성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로 인하여 지역에서의 삶이 더욱 불안정해지는 것은 예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여성의 초국가적 차원에서의 적응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개발을 개발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적응을 개인, 지역사회, 초국가 차원에서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지역사회 단일차원에서의 적응과 관련된 연구와 차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질적연구가 선행적 연구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연구영역의 확대와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새로운 특성을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여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앤서니 기든스, 한상진·박찬욱 역, *제3의 길*, 생각의 나무, 1998.
 [2] 설동훈, *국제결혼이주 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2005.
 [3] 이선주 외,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4] 양애경 외,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5] 이오복,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을 통한 정착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4권, 제4호, pp.25-56, 2009.
 이용재·배화숙, “결혼이민자의 사회서비스 및 정

보의 접근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환경정보학회지*, 제39권, 제4호, pp.479-504, 2008.
 [6] 황정미,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현황과 증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9.
 [7]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소통과 갈등: 다문화가족 갈등예방과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2006.
 [8] J. W. Berry,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pp.291-326 in *Handbook of Cross Cultural Psychology*, Vol.3 (2nded) edited by Berry, Segall and Kagitcibasi, Allyn & Bacon, 2005.
 [9] 김현숙,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유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07.
 [10] C. Ward, Acculturation, *Handbook of intercultural training*, edited by D. Landis and R. Bhagat, Newbury Park, pp.124-147, 1996.
 [11] L. V. Newman, *The expatriate adjustment proc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구차순,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2007에서 재인용.
 [12] Alderete, “Depressive symptomatolog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27, No.4, pp.193-216, 1999.
 [13] 이용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 네트워크의 특성: 보은과 양평을 사례”,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39권, 제4호, pp.479-504, 2007.
 [14] 정천석, 강기정,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3권, 제1호, 2008.
 [15] 윤행숙,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8권, 제2호, 2005.
 [16] 양애경,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수용성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17] 김승권,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여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18] Crang, “Transnationalism and the space of

commodity culture, Progress," Human Geography, Vol.27, No.4, pp.438-456, 2003.

- [19] 고민경, 한국지역지리학회 학술자료집, pp.91-93, 2009.
- [20] 이용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 네트워크의 특성: 보은과 양평을 사례",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39권, 제4호, pp.479-504, 2007.
- [21] 조용환, 질적 사회복지연구: 현상학적, 임상적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워크샵 자료, 2010.
- [22] 테보라 K. 패짓, 유태균 역, *사회복지 질적 연구 방법론*, 나남출판사, 2001.
- [23] 에드먼드 서먼, 위리엄 리드 편, 유태균·이선희·서진 환 역, *사회복지 질적연구방법의 이론과 활용*, 나남출판사, 2003.
- [24] 원희목 국회의원 국감보도자료, 2010.10.8.
- [25] 윤혜미,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임파워먼트 기반의 사회복지실천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4호, pp.85-108, 2009.
- [26] B. Atca and J. W. Berry, "Psychological, sociocultural and marital adaptation of Turkish immigrant couples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Vol.37, No.1, pp.13-26, 2002.
- [27] 이혜경,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25권, 2009.
- [28] 김승권,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여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29] 이숙진, "다문화가족에 대한 몇 가지 오해", 복지동향 5월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1.
- [30] 김영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방안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09.

저 자 소 개

성 향 숙(Hyangsook Sung)

정회원



- 1992년 8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00년 8월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다문화 사회, 결혼이민여성.